

왕십리

2004년 10 · 11월호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달

내·마·음·의·풍·경



가벼운 존재이고 싶어라

교만, 욕심, 미움,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름처럼 가벼워지리라.

어떤 이는 가벼운 사람이라 비웃을지라도
나에겐 주님과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리라.

그리고 메마른 세상을 적셔주리라.

글·사진 / 차주영

- 이달의 성구 -

목 차 / Contents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내 마음의 풍경 / 가벼운 존재이고 싶어라	- 3
목회컬럼 / 창조적 고요	- 4
독자투고 / 김성희 선교사 방문 보고서	-5
부서소개 / 사이버공간의 세례요한 - www.wpc.or.kr	-8
기획기사 /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1-전덕기목사편)	-10
선교편지 / 어둠은 사라질 것 입니다	-13
동행취재 / 몽골을 다녀와서(2)	-14
왕십리 이모저모 / 제 1회 출애굽학 세미나, 제 14기 출애굽 선교 훈련(EMTC) 및 총회 강북 지역 선 교훈련(LMTC), 왕사고 모임에 초대합니 다.	-16
왕십리블로그 / 성공은 베푸는 것이다.	- 18
가정예배 /	-20
책소개 /	-25
음반소개 · 퀴즈	-26
요리 / 약식케익	-27

창조적 고요

나는 조용한 장소, 고요속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외롭게만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한 것 같다.

기도할 때 나는 통성기도를 좋아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깊은 비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도움을 받았다. 대학생 시절 부흥회에 참석하여 통성기도를 하는 중에 은혜를 받은 것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도 내게는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목사의 소명을 받던 순간도 통성으로 기도하던 때였지만 막상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던 때에는 한 점 구름같이 조용한 음성으로 다가왔었다. 그리고 제 3일째 학교에서 조용히 어딘가를 보고 있을 때 그 고요를 틔타서 소명의 손이 나를 꼭 잡았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창조적 고요가 있었다.

근래 들어서 나는 묵상기도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많은 경우 통성기도보다 묵상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 것 같다. 강단에서도 고요하게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요즈음 특히 더 그렇다. 이 묵상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참으로 많은 기도의 응답이 오는 모습을 바라 보면서 혼자 감격스러워하곤 한다. 묵상은 아무리 많은 것들이라도 동시에 보는 힘이 있고 함께 아우르는 능력이 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 고요한 그 속에서 이루어질 꿈의 세계가 확신되기도 한다. 창조적 고요라고나 할까…….

얼마전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함께 길을 걸으시는데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으세요”라고 하셨다.

가만히 서서!

출애굽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서서 외친 음성이 그러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창조적 고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만히 서 있지만 그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렁차며 홍해를 가르는 바람소리는 천지를 흔드는 것이다.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우뢰소리를 듣게 된다.

창조적 고요.

그러고 보니 이미 가을이다. 결실하는 때에 꿈과 비전을 함께 열매맺는 곳은 어디인가 둘러보다가 어느 배밭 곁을 지난다. 진짜 좋은 배들이 저 속 깊은 곳에 있을텐데, 생각하니 어렸을 때 배밭 곁에서 어머니를 조르던 생각이 난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꿈과 비전이 열매를 맺는 그곳. 창조적 고요의 너울로 가려진 깊은 영혼들. 그 속으로 들어가 만나보고 싶다. 동트는 고요의 빛을 받으며 그들과 사랑의 나라의 미래를 호호하고 싶다.

손에 손 잡고. 

김성희 선교사 방문 보고서

장소 - 태국 북부 치앙라이 가나안 교회 <김성희 선교사>

시간 - 2004년 8월 16일~20일

목적 - 선교지의 현황 파악 및 체험을 통해 평신도 선교사의 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만평 정도의 교회에 산족 출신 전도사 7명과 원생 60여명이 있다. 아카족, 라후족, 카렌족, 몽족, 리스족, 미얀마인 등이다. 교회로는 본부인 가나안교회와 후웨이 똌똌교회, 도이비 아카교회, 위양과 라후교회, 방콕 가나안교회, 뽀정서교회를 관리하며 신앙지도를 하고 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이고, 초등생은 폐교가 되었던 건물을 훈련원으로 빌려 따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마약, 가난, 우상, 무지, 질병에서 이끌어 내는 운동이요 선교활동이다. 3650평의 논에서 수확되는 쌀로 30%의 식량을 조달하고 있고 가축과 양어장의 물고기를 키워 자급 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하니 그 곳 시간으로 16시(한국시간 18시)였다.

방콕에서 18시 20분경 북부에 있는 치앙라이에 도착했다. 김성희 선교사와 사모 함옥자 선교사가 마중을 나와 50여분을 승용차로 더 간 다음 선교사의 사택에 도착하여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잘 도착하였다고 전화를 거니 한국시간으로 자정 경이었다. 집 밖에서는 개구리가 요란하게 울고 집에서도 도마뱀을 볼 수가 있었다. 더울까봐 걱정을

하였었는데 아주 기분 좋은 기후였다. 모기도 없었다. 평소에 선교사는 21시에 자고 05시경 일어난다고 한다. 그곳의 생활들이 그런가 보다.

다음날 05시에 일어나 훈련원 <가나안 교회> <가나안 출애굽 센터>에 가서 5시 30분에 원생들을 보았는데 벌써 그들은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전도사가 인도하고 있었다. 성경을 읽은 후에는 나누는 시간에 각자 진지하게 대화가 오고 갔다. 그 시간이 끝난 후 밖에 나와 삼을 들고 모두 일을 한 다음 식사를 하고 학교로 가는 것이다.

훈련원은 만평 정도의 대지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세워졌으며 2층에 예배 처소가 있고 남녀 숙소가 있으며 1층은 식당과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앞쪽은 운동장이며 뒤쪽은 작업실과 화장실과 돼지 사육장과 내가 있을 동안 2일만에는 산족들의 집으로 된 기도실(?)이 있으며 왼쪽으로는 뽕나무 밭과 양어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과일 나무가 있었다. 큰 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또 대나무들이 많은 것이 특이하였다. 식사는 쟁반에 쌀밥과 국에 반찬 한 두가지, 그리고 반찬과 국은 태국 특유의

WANGSIMINI 5



넓은 잔디위에 세워진 가나안교회(훈련원)



↑ 아카족 산족마을에서
← 아카족 교회앞에서 김성희 선교사와(맨
우측) 현지 전도사

향이 있었으나 먹을만 하였다. 원생들은 각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낮에는 선교사님이 관리하는 논도 가서 보았다. 모심기는 원생들의 부모가 1년 중 4회 의무적으로 와서 해야 한다고 한다. 탈곡은 기계를 임대하여 거둔다고 한다. 논은 우렁이와 게가 많이 있었다. 자연 친화적 농법으로 동물에게서 나온 것은 식물에게, 식물에게서 나온 것은 동물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이며 버리는 것이 없다. 태국정부에서도 주시하는 곳이라고 한다. 다른 선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생활면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다. 내가 있는 동안 학부모들이 와서 밭에 김도 매고 그 외 훈련원에 필요한 노동을 하였다. 그들은 상냥하며 악수하는 것을 좋아하여 처음 대하는 그들과 많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한국에서 보내준 헌옷들을 필요한대로 골라 갔고 교통비는 선교사가 준다. 그 다음날 저녁시간에는 김성희 선교사가 두 번째로 옮겨 선교의 장소로 삼았던 학교 건물로서 초등학교 전용예배 장소 겸 숙소였다. 그곳에서 선교사 사모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그 곳의 원생들은 초등학교생 20명 정도 중·고등 학생 40여명 정도이며 김성희 선교사와 동역하는 사람은 사모님 함옥자 선교사와 산족출신

전도사가 7명인데 전도사들은 훈련원에서 원생관리 하는 전도사와 식물관리 하는 전도사, 산족교회관 일을 한다. 전도사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정식 신학생의 전도사가 아니라 중졸의 실력에 신앙적으로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다. 신앙적으로나 훈련원의 업무적으로나 심히 미약한 사람이기에 김성희 선교사가 매사에 일일이 지시 감독하여야만 일이 정리된다. 두 선교사를 살펴보니 몹시 지쳐있어 염려가 되었다. 김성희 선교사와 직업훈련소를 찾아보려고 함께 차를 타고 나왔다가 세 사람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졸음 운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아기와 두 여자가 타고 있었으나 무사하고 수리비로 700바트를 주고 해결 하였다. 100바트가 그들의 일당이라고 한다. 내가 귀국하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여행사로 사모와 함께 나왔다가 졸음 운전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일도 있었다. 방학 때면 많은 방문객접대와 외부로 나가서 보고 활동 등 훈련원 돌보는 일과 겹쳐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것 같다.

교회와 훈련원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2명의 한국인(실력 있는)협력자와 태국인 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훈련원이 세워지기까지는 백령도교회의 50주년 기념교회건축과 부산 사랑의 교회등에서 보내준 선교 후원금과 강원도 정선 제일교회의 이장로라는 분은 약초 재배하는 분인데 약초가격이 급락하여 기도하기를

약초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씨앗값 외에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다가 목사님이 가나안 교회소식을 알고 이익금 전부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 외에는 선교사가 안식년에 귀국하여 선교 사례비로 받은 돈과 선교에 뜻을 갖고 보내준 돈으로 지금의 훈련원과 땅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아카족 마을 두 군데를 찾아보았다. 굶이굽이 굽은 산길은 좁고 험하여 차는 덜컹거리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언덕에서 잠시 세웠다가 다시 기아 넣고, 엑셀레터를 밟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산족 동네를 갔다. 첫 동네는 개울 건너 언덕에 자리잡았는데 24가구가 살고있는데 그들 특유의 초가집으로 되어있었다. 원두막 같은 이층집의 한쪽 귀퉁이에 그릇 몇 개가 있는 식당에서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여 쉬며 기다렸는데 닭을 잡아 요리를 하고 야채반찬 두 가지에 무슨 채소인지 뜯어와 대접을 했다. 닭은 뼈까지 다져서 요리를 하여 한 입 넣고 뼈 고르느라 애를 먹었다. 손님이 만들어준 음식을 다 먹는 것도 결례라고 하니 누가 가시든 다 먹지는 마시기를 바란다.

산족교회의 모습은 초가에 나무토막 의자가 있고 앞에 설교단이 있다. 한 곳에서는 밖에 세워진 십자가가 비뚤어져 있었다. 교회들을 세워 달라고 무척이나 조른다. 그곳에 벽돌이나 브록스를 쌓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하면 5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면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고 하니 뜻이 계신 분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교회 헌당 하나 하시면 좋겠다. 황영혜 권사님 회갑기념으로 산족 동네에 세우신 교회는 선교사들간에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국어란 우상숭배의 나라요, 문화적으로 말하면 소송 불교를 생활해 온 불교의 나라다. 윤회를 믿어 개를 키우며 그

들을 조상 대하듯, 가족 대하듯 하며 곳곳에 귀신이 쉬어가는 귀신집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태국의 산족은 주민등록도 정리되지 않고 야채에 소금 짠 밥 한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보내준 옷으로 떨어질 때까지 입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태국에 남겨진 복음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전도의 불 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태국 선교사들이 산족 선교를 하며 그곳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도 하나님 섭리라고 본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선교사들은 그곳의 문제를 바로 보고 짚어지고 해결하기를 위해 힘써야 된다. 태국 선교대상자들의 문제는 마약, 가난, 우상, 무지, 질병이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선교, 교회개척 일꾼양성, 스포츠선교, 교육선교, 의료선교를 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사업이 가나안출애굽훈련원의 사업이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의료팀 6명이 찾아와 하루에 400명 쯤 치료하기도 하였고 강원도 청년들이 찾아와 스포츠와 찬양, 노력봉사로 돕기도 하였으며 노회별로 방문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노력하는 태국 치앙라이 가나안출애굽교회에 함께 하시어 훈련을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와 스스로 강건하게 자립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산족 학부모 봉사자와 함께 가나안교회앞에서.....

사이버공간의 세례요한

왕십리홈피

www.wpc.or.kr



현재 전산위원회는 위원장 노원길 장로. 실무담당자는 전산실의 최원석 집사와 여러 전산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몇 년의 노력으로 거의 모든 사무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었고 거의 모든 교육관의 사무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얼마 전부터는 무선랜까지 설치되어 있어 노트북 컴퓨터로 도서관과 교육관사무실, 본당등에서 자유로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왕십리교회의 사이버 목회의 장을 여는 하드웨어적인 환경을 거의 구축한 상태에서 새로이 홈페이지를 버전업시켰다. 지난 2~3년간 사용해 왔던 왕십리교회 홈페이지를 6월 초에 업그레이드 했다. 이번 홈페이지의 준비는 약 5~6개월여의 준비후 오픈한 것으로 이전 홈페이지(이후 홈페이지라 부른다)를 운영하며 드러난 불편사항들을 개선하여 제작되었다.

새로운 홈페이지의 개편 이유는 2002년 제작된 홈페이지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했고, 메뉴조작이 불편했으며 둘째는 초기 페이지의 개선, 왕십리지의 PDF지원, 왕십리 교회 인터넷 방송 준비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방송은 현재 주일예배와 청년부 4부 예배를 주일에 실시간 방송 중이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며, 특별집회 등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 예배를 이런저런 이유로 놓치신 분들은 가볍게 버튼 하나로 은혜로운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다.

성도의 참여를 위해 커뮤니티도 강화되었다. '성도의 교제'란 메뉴 안에 QT 나눔, 기도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베품시장, 성도사업장 등등이 개설되었다. 이들 코너를 통해 교인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큐티나눔'이나 '기도해주세요' 등에서는 신앙적 교류를, '베품시장'에서는 쓸만한 재활용 물품의 교환이나 판매 등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사업장소개'란에서는 교인들이 보다 친절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소개받고 교인 사업장은 불황의 때에 매출증대의 효과도 살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나 본 항목들은 이번에 새로 개설되었으나 아직 활성화가 되지않아 아쉽다. 보다 많은 교

인들의 참여로 쓸만한 재활용품의 활발한 이용과 절약의 도움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음은 주일학교와 교육훈련 메뉴이다. 각 주일학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활성화된 교제가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주일학교는 현재 각자의 카페나 싸이 등을 링크시켜 놓았다. 교육과 훈련코너는 장년부나 교회의 특별 교육프로그램들을 안내하는 코너이다.

그리고 왕십리신문사는 교회보인 왕십리지의 PDF화일을 올려 놓아 지면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다. 현재 새신자 관련 코너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새신자들을 소개하고 친절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개편전에 있던 메뉴는 메인화면 하단부의 배너버튼을 통해 바로 갈 수 있다. 또한 유익한 기독교 사이트로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전산위원회의 최원석집사는 앞으로도 교인들의 불편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두었다가 개편시기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

는 대표적 교회사이트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홈페이지라도 교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또한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이용하려해도 불편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이트라면 외면할 것이다. 교회의 홈페이지는 단순히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즐기기 위한 카페 모임이 아니다. 사이버 교회이며 네트워크 교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장이 되며, 성도간 교제와 무한 공간인 사이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장이다.

예수님이 오시기전 인터넷이 없는 그때에는 ‘광야의 외치는 자가 세례요한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홈페이지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세례요한인 것이다. 전산위원회를 뿐 아니라 교인 모두 사이버전도자가 되어 교회 홈페이지를 복음의 가장 좋은 확성기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1)

- 전덕기 목사편 -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1)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2)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3)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4)

4회에 걸쳐 전덕기 목사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전덕기 목사는 이승만, 김구 등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상동 교회를 중심으로 당대 민족운동을 줄기차게 펼치며 그리스도를 섬겨 온 신앙인입니다.

1.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다.

지계에 커다란 솟 두통을 올리고 배달을 간다. 나도 얼마 전까지 다른 아이들처럼 뛰놀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게 그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학교를 마치고 동무들과 물장구를 치며 이산, 저 산을 달리던 이야기는 아직까지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 경기도 이천의 넓은 논 사이로 풍성하게 고개를 숙이던 가을 추수의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어리광을 피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아버지 댁에서 솟이나 장작을 배달하는 것이 고작이다.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

끊임없이 찾아온 역경의 시간들.....

아버지는 내가 아홉 살이 되던 해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머니도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도 전에 모든 삶을 바꿔 놓았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할아버지마저도 두 해만에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떠나버렸다. 더 이상 나를 돌봐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저주받은 인생.....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랑을 다시 가슴에 묻어야 하는 저주 받은 인생,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면 곧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2. 마음 속의 아픔과 혼돈

더 이상 이천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나는 삼년 전부터 서울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다. 남대문 시장에서 장작과 솟을 팔던 작은 아버지를 돕는 것이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작은 아버지는 내게 너무도 잘 대해 주셨지만, 그리고 사촌들도 내게 너무 잘 대해 주었지만,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행복한 그들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미운 오리였다. 물론 작은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온 몸이 땀으로 젖고 밤이 되면 지친 몸으로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운 오리인 내가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순간은 무거운 지계를 지고 배달을 나가는 시간뿐이다. 무거운 지계는 내게 괴로움을 묻지 않는다. 나를 동정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제법 지계를 지는 일에도 익숙해 졌고, 배달을 하는

동안 듣는 이런 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지계를 메고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 공사관에서 근무를 하는 오봉엽이라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무서워 떨기도 했다. 어떤 여자들은 두 손을 입에 모으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것이었다.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주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서양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전부터 듣고 있었다.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다 눈을 뽑아서 사진기의 재료로 쓴다거나 아이들의 몸을 병원에 약재로 쓰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오봉엽의 말처럼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다. 이미 서울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볼 때면 겁이 나서 도망을 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덤비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다. 서양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화학당에 다니는 여자들은 서양 사람들과 친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들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업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아이를 팔러 간다고 오해를 하고 그 어머니를 때려죽인 일도 있었다.

세상도 혼란했지만 내 마음도 그만큼 혼돈스럽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갈 곳 없는 내게 잘 대해주시는 작은 아버지께 화만 내게 된다. 모든 것이 나를 동정하는 것만 같고 나는 이들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세상 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할아버지와 살던 일도 기억에 떠오를 때면 내가 행복해서는 안 될 것만 같다.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지만 갈 곳도 없다. 그저 내가 달아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은 숲을 배달하는 순간 뿐이다. 그저 매일 분만과

분노로 매일을 살고 있다. 누구라도 흠뻑 때려주고 싶다. 아니면 그냥 미친 듯이 달려보고 싶다. 이 놈의 세상, 내 마음만큼이나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맘껏 욕이라도 하고 싶다. 해도 뭐가 불만인지 나를 말려 죽이려는 것 같이 뜨겁다.

3. 친구, 호기심, 그리고 작은 변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나를 더욱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서양 놈의 집이 저렇게 으리으리하다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먹만 한 돌이 있었다. 나는 돌을 한 주먹 가득 힘을 주어 들고 집 안쪽으로 온힘을 다해 던졌다. “더러운 양놈아 당장 여기서 떠나라.” 유리창이 깨졌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나는 뚫어져라 그 창문을 응시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서양 선교사의 머리가 보였다. 그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돌을 던졌는지 찾고 있었다. 나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내가 뻗뻗하게 서서 그 양놈을 향해 눈을 흘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 몸에 움직일 수 없는 무언가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다. 도망치고 싶은 생



각이 들었다. 아니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놈의 저주받은 인생, 더러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 나왔다. 그리고는 나를 잡아끌고 집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무지막지한 어른들의 힘에 나는 그저 힘없이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온갖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양놈 앞에 서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그가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잡아먹겠다는 미소인가?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그는 내게 상냥하게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같이 느껴져서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조선말이었다. “총각님이 돌을 던졌습니까? 실수로 했을 터이니 그리 마음 아파하지 마시오.” 그는 나를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 눈을 뽑아 사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어차피 도망을 쳐봐야 아까 나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집안은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이었다. 그는 나를 앉으라고 하더니 이것을 주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내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니 내게 적의가 없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는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다. 과자를 집어 드는 순간 돌을 던졌던 내 손을 보게 되었다. 왜 그렇게도 내 손이 크게 보이는지, 한 겨울 두툼한 장갑을 낀 것 같았다.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과자를 먹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들던 것과 같이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계를 지고 돌아가는 내게 과자를 조금 싸주었다. 그는 언제든지 자기를 만나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갑자기 신이 났다. 다들 무서워하는 사람이 내게 친구가 되었다. 가게로 들어오는데, 작은 아버지는 정신없이 바쁜 척을 했다. 아마도 짜증과 불만에 가득 찬 나와 부딪히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던 내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인지 작은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상냥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과자를 가게에 풀어 놓고 선교사의 집에서 있던 일을 말했다.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나는 그들과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저녁 밥상에 둘러서 내가 얻어온 과자를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항상 받기만 했던 초라한 내 모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촌 형제들에게 낮에 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모두들 신기해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도 한번 가볼까? 내일은 가면 집안에 있던 이상한 물건들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 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의 선교게시판의 선교사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 굼즈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스테이션의 경계를 부여 받은 날입니다. 아침 일찍 추장인 윈바르를 중심으로 몇몇 지도자들이 총을 들고 스테이션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스테이션 주위를 걸으면서 큰 나무나 골짜기 등을 표시로 경계를 정하였습니다. 이 경계는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로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만큼 법적인 것 만큼이나 공고한 것입니다. 굼즈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로부터 금전적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좋은 일들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경계를 정한 후 이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식을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식은 일종의 언약 의식으로, 의식을 통해 서로간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양을 한 마리 사고, 그 양으로 음식을 만들어 같이 먹으면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음식을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도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계약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한낮의 더위가 조금 물러갈 시점에 그들로부터 양을 사 왔습니다. 추장 윈바르와 몇 사람이 역시 총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윈바르는 칼을 손에 들고 양의 목을 따기 전에 그들의

하나님 무사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사는 어렵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랑보다는 화를 잘 내는, 때때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별이 빛나는 그날 밤,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기 전에 추장 윈바르가 일어나 우리의 언약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장의 말이 끝나자 한 노인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들과 뛰어놀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옴을 통해서 더 이상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어두움도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한데 어울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굼즈 단어를 외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그들은 미소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거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배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로 쓰고 읽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해 줄 것입니다. 





몽골을 다녀와서

〈 두번째 이야기 〉

청년부 / 이수정 기자



2. 만달고비, 현지 교회 -

미래교

회 & 고비의 빛 교회

가정 심방이 진행 되고 있는 사이에 울란바트로에서 차로 약 9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의 현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단기 선교팀이 몽골에 있는 기간동안에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가 몽골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집회에 참석하진 않았고 대신 현지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9시간 가는 동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거라곤 풀 몇 포기밖에 없는 초원뿐이었다. 광야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먼지만 뿌옇게 일어나던 비포장 도로를 9시간 내내 가야 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먼 거리 일텐데 아무것도 없는 초원에 가끔 말들이 뛰어나거나 양들이 몰려다니고 게르라는 전통집이 한두 채씩 드문드문 있었다.

도착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단 하나 ‘온 길을 어떻게 되돌아 가나’ 뿐이었다. 그 곳을 ‘만달고비’라고 하는데 여행의 가장 큰 고비였다.

도착한 마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미래교회’와 남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고비의 빛’이라는 교회였다. ‘미래교회’에서는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고비의 ‘빛 교회’에서는 어린이 예배를 드렸다.

그 먼 곳까지 가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건 놀랍게도 울란바트로에서도 보지 못한 찬양의 뜨거움이었다.

어른이나 어린이 모두 얼마나 기쁘고 힘차게 찬양을 드리고 울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힘들게 간 우리 팀에게 오히려 위로와 감사함이 되었다.

비록 교인이 어른 20명, 어린이 3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보이는 모습이나 인원수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직접 경험케 하셨다. 어린이 집회 때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받으며 박동화 전도사님이 말씀울 전해 주셨다.

3. 몽골의 자연 만끽하기

일정이 길지 않았던 관계로 ‘만달고비’의 광야 밖에 보지 못한 우리팀이 마지막날 또 다른 몽골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귀국한 두 명의 자매가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데려가 준 ‘텔레지’라는 곳이었다.

그 곳은 2시간 정도 걸렸는데 풀과 나무가 많은 초원과 강이 있는 곳이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산 깊고 물 맑고 나무가 많으니 별로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림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 때문에 몽골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을 정도로…….

또 여기서 양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는데 간사님의 설명이 양은 죽는 순간까지도 소리를 내거나 발버둥을 치지 않고 얌전히 있는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에 비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몽골인이 양을 잡을 때는 피를 땅에 흘리지 않고 잡는다고 하는데 정말 능숙한 솜씨로 양을 잡는 동안 양은 미동도 하지않고 숨이 끊어졌다.(그리고 양을 허르헝이라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다.)

몽골에 대해 많은 사전지식 없이 가게 되어 준비가 많이 부족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몽골에 배를 세우시고 몽골에의 첫 번째 심방이 무사히 마감을 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몽골을 만나게 해 주셨고 왕십리 교회를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는 몽골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더욱 커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들이 단지 고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몽골 선교사로서 그들을 파송하며, 보내 줄 수 있기를…….

또한, 몽골 뿐만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민족의 예배들이 생겨나 우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곳에서 선교사로 섬길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주)

▶ 대부흥기도회를 위한 준비 모임 및 제 1회 출애굽학 세미나

지난 9월 6일(월) 수도노회 칼빈학회가 주최하고 수도노회 목사회, 장로회, 왕십리 교회 대부흥 운동 위원회가 후원하는 대부흥기도회를 위한 준비 모임 및 제1회 출애굽학 세미나를 본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출애굽학 세미나는 ‘출애굽과 그리스도, 1907~2007 대부흥운동’이란 주제로 박용규,

문병호(이상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필찬(웨스트민스터신학교), 김근수(칼빈신학교) 교수가 각각 ‘평양 대부흥운동’ ‘칼빈의 기독교적 출애굽 이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출애굽 사상’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출애굽 사상’에 대해 강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번 세미나는 교재로도 발간되었으며, 오치용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출애굽 선교(Exodus Mission)내지는 출애굽 운동(Exodus Movement)이 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제14기 출애굽 선교 훈련(EMTC) 및 총회 강북 지역 선교훈(LMTC)

지난 9월 14일(화) 저녁 7시에 본교회 중등부 예배실에서 20여명의 선교 훈련생들이 모여 제14기 출애굽선교훈련원(EMTC) 및 총회 강북지역 선교훈련원(LMTC)이 개최되었다. 이날 개강 예배는 왕십리교회 목회간사인 김남수 목사의 사회와

성도교회 EMTC 목회간사인 류시하 목사의 기도, ‘출애굽 영성과 5대 운동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오치용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이번 14기 훈련은 12월 7일까지 12주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여 선교사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이다. 

▶ 몽골인 추석 연합 수련회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화도에 소재한 말씀의 집에서 디엠엔(DMN:Diaspora Mongol Network-전세계 몽골인 사역단체)이 주최하는 몽골인 추석 연합 수련회가 있었다.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몽골 현지 목사(바트 볼트 목사, 에미드 옥 교회 담임)의 설교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지역 아홉개의 교회에 출석하는 몽골인들과 전국 각지에서 약 24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 교회에서는 몽골인과 몽골예배 스텝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초신자의 비율이 약 30%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임이 되었다. 아울러 이제 막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몽골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년 구경에도 수련회로 모임 예정이다. 



▶ **왕.사.고 모임에 초대합니다.**

지난 10월 3일 영아부 예배실에서 40여명의 30대 성도들이 ‘왕·사·고(‘왕십리교회 사랑 고리’의 약자)’ 첫 모임을 가졌다. 왕사고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원하는 30대 지체들의 소그룹 모임이다. 이날 첫 모임은 1부 경배와 찬양, 2부 강의로서 진행되었으며 삼상 14:1~6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제목으로 장상기 목사가 강의하였다. 그동안 본 교회에는 평신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지 못했다. 이는 청년부 기간동안 셀 형태의 공부에 익숙해진 세대들이 강의식 공부에 대한 선입

견과 결혼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여집사들 중심의 제자교육이 어느정도 성숙해지는 단계에서 남편 집사들의 자연스런 동참이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왕사고모임이 출발했다. 대상은 왕십리교회 성도로서(30~40대) 청년부를 졸업한 기혼·미혼성도, 새신자 교육을 마친 성도중 제자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면 누구나 환영이다. 모임시간은 매 주일 3부 예배 후 오후 13:00~ 14:50으로 모임장소는 영아부 예배실이다. 참여방법은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된다.

문의 : 장상기목사(3·4교구장)

이광희전도사(영아부지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



왕 사 고 **Turning Point Of Your Life**
 (찬양과 기도, 성령, 삶의 변화)
 -일시:매주 13:00 ~ 14:50 -장소:영아부 예배실
 제2교육 실행위원회 왕십리사랑고리모임

성공은 베푸는 것이다.



WANGSIMNI 18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 란 질문으로 현상 공모를 했다. 독자들로부터 비행기, 기차, 도보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나왔다. 과연 1등으로 당선된 답은 무엇이었을까? 의외의 답이 1등으로 뽑혔다. 바로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이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가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반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Companion' 이다. 이 말은 빵(식사)을 같이 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영어사전을 보면 '길동무', 또는 '말동무' 라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조직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길동무, 말동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첫째,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들 한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제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제게 복을 주지 못합니까?" 스승은 "그대는 어찌 한 되짜리 그릇을 갖고 한 말의 쌀을 받아 오려고 하는가. 한 조각의 천을 들고 옷 만드는 집에 가서 한 벌의 옷을 지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매사를 찡그린 얼굴로 대하면서 기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정한 이웃이 그리고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 어찌 다른 사람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주 간

단한 이치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겠는가? 우선 뿌려야 한다. 그것도 사랑의 씨앗을 말이다.

둘째,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라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100명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연령층도 다양했고, 교육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또 여러 가지 소질과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약 70%가 인구 1만 5천명 이하의 소도시 출신이었다.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이들은 모두가 '좋은 점 발견자' 였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 앞에 A4용지를 펼쳐놓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동그라미 안 쪽 어느 곳에 작은 점을 하나 찍어보아라.

작은 점보다는 여백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여백을 보아야 한다.

셋째, 스승같이 대해줘라

미국의 저명한 리더십 관련 연구소인 Creative Leadership Center가 미국 내 기업 관리자 중 성공을 거둔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당신이 가장 영향을 받은 교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대

다수의 관리자가 직장에서 만난 상사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영향을 준 상사들은 한결같이 스승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그리고 스승 같은 상사들은 이들에게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었다. 항상 부하를 지켜보았다. 부하에게 재량권을 주었다. 적당 주의를 용납하지 않다.

넷째, 남을 먼저 생각하라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이 사람은 먼저 지옥을 구경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왼 손에 포크를 오른 손엔 나이프를 들고 있었다. 포크와 나이프의 길이는 약 4자 정도 되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째어 먹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남에게 음식을 먹여줄 줄은 모르고 자기의 입에만 넣으려고 헛수고만 계속 하고 있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아사 직전에 있었다. 그 다음엔 천국을 돌아보았다. 이곳 사람들은 시뭇 달랐다. 건강해 보였고, 생기가 넘쳐 있었다. 이곳 사람들 역시 지옥 사람들과 똑같은 크기의 포크와 나이프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이 서로 음식을 먹여 주고 있었다. 상대를 도와줌으로써 자신도 도움을 받고 있었다.

다섯째, 따뜻한 가슴을 가꿔라

한 심리학자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애정실험을 해보았다. 그는 두개의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아기 원숭이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딱딱한 인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솜과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인형이었다. 이 심리학자는 인형의 가슴속에 젖병을 넣어 아기원숭이들에게 내밀었다. 원숭이들은 양쪽으로 나눠 인형의 젖을 빨았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원숭이들은 철사인형은 외면한 채 솜 인형으로만 몰려들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날카롭고 차가운 이들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음식보다는 양지에 모이기 마련이다.

엄마와 심하게 다툰 한 소년이 화가 나서 산으로 달려갔다. 이 소년은 골짜기에 대고 “당신을 미워해, 미워해, 미워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골짜기에서 “당신을 미워해, 미워해, 미워해” 하는 메아리가 울려왔다. 당황한 이 소년은 집으로 달려와 자기 어머니에게

골짜기에 나를 미워하는 나쁜 소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을 데리고 산 위로 갔다. 그리고 아들에게 “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외치게 했다. 그랬더니 “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착한 소년의 목소리가 골짜기에서 울려왔다. 그래서 인생은 메아리와 같다. 당신이 보낸 것은 당신이 돌려 받는다. 그러니까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한 때 국내.외에서 화제가 된 책이 있었다. 그 책의 이름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다. 이 책에 나오는 유치원의 교훈들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다.

나누어 가져라. 다른 아이를 때리지 말아라.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네가 더럽힌 것은 네가 닦아라. 네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당신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은 유치원에서 배웠을 것이다. 아주 평이한 지침이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테서 문제는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어른 유치원생’이 되었으면 한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빨리 변해가더라도 ‘베푸는 대로 받는다’는 원칙은 변하질 않을 것이다. 좌우지간 다음 달엔 상대의 입장에서 보아라. 그리고 먼저 베풀어보아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신은 풍성한 또 다른 다음 달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다음 달엔 좌우지간 베풀어보아라. 성공은 베푸는 것이다. 

셀러리맨사이트/ www.sman.co.kr
이내화 컬럼에서 발췌



“ 진정한 회복을 바라십니까? ”

성경 / 누가복음 17:11-19 · 찬송 / 369장, 370장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특별한 은혜로 무서운 질병에서 회복된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울러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1.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 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 13.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환자는 자기의 아픔을 의사에게 호소할 때, 이미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병원을 가지 않고 있으면 치료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들의 처지를 주님께 소리 쳐서 알리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회복은 진행이 됩니다.

- 14.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협에서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처방이 내려질 때까지 즉, 주님의 응답의 음성이 내려질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 107:20)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3.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회복은 나타납니다.

주님은 문둥병자들의 몸을 깨끗하게 고치신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먼저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문둥병자들이 ‘고쳐지고 난 뒤에 제사장한테 가야지, 낫지도 않은데 갔다가 제사장한테 미친 놈이라고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가지를 앓았다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가는 도중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주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심지어는 응답을 당기는 두 개의 열쇠가 됩니다.

4. 예수님께 감사할 때 회복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명만이 육체적인 구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9명은 육체적인 회복에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감사한 한 사람은 영혼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 은혜를 회복합시다. ”

성경 / 출애굽기 34:1-7 · 찬송 / 376장, 377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와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와 이름을 반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의 악을 자여손 삼 시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범죄가 나옵니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계약이 깨어진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을 모세에게 밝히심으로 모세가 준비하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의 자세를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1. 은혜를 회복하려면 처음 같이 다듬어야 합니다.(1절)

깨어진 돌비를 다시 새기기 위해서는 처음 것과 같은 모양으로 돌을 깎아 다듬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갖도록 깎고 다듬어야함을 말씀합니다. 돌을 깎아내고 갈아내듯 우리의 마음에도 불필요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2. 은혜를 회복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2절)

모세는 돌판을 미리 준비하여 올라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른 새벽에 준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한 시간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은 명상하기 좋고 예배드리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기도 쉬운 시간입니다. 준비하여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은혜를 회복하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3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멀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오를 때에 인적을 금하고 잡다한 재산인 가죽까지도 멀리하고 산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곤 했습니다. 성결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하라.”

성경 / 사사기 15:14-20 · 찬송 / 383장, 384장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명을 죽이고 16.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더니, 두더미를 쌓았음이어 나귀의 턱뼈로 내가 일천명을 죽었도다 17.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곳을 라밧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8. 삼손이 심히 목마르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19. 하나님께서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래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년을 지내었더라

오늘 본문은 3대 사사중에 한 사람인 삼손이 혼자 힘으로 적군인 블레셋 사람을 나귀턱뼈 하나로 일천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탈진한 상태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곳에 샘물을 터쳐 주심으로 삼손이 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 하였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친 삶에도 회복되고 소생하여 새 역사 이루기 위하여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한 자에게 쉬을 주십니다. (15-18절)

혼자의 힘으로 엄청난 원수를 물리쳤으니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자에게 하나님은 쉬을 허락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한 사람에게 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때 놓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면 쉬을 주시어 소생하게 하십니다.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참으로 마땅한 말씀입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지금이 곧 그 때입니다.(고후6:2)

2. 기도할 때에 회복되고 소생됩니다. (18-19절)

삼손이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샘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하여 “엔학고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렘33:3) 하셨습니다. 혀가 마를 만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사41:17)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회복되고 소생될 줄 믿습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란 자기의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바른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약4:3)

3.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회복되고 소생됩니다. (19-20절)

샘물이 솟아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소용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3-14)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자유함을 입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고 소생해야 합니다. 내 힘과 재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갈 길도 찾고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 회복하시 하나님 ”

성경 / 에스겔 36:32-38 · 찬송 / 417장, 421장



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찌어다 3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찌라 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38.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10:10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온갖 유혹과 세상영려, 근심, 걱정을 주어서 이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풍성한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체념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와 같은 삶조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열방에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저 모양이 되었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런데 37절에서 놀라운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 하나의 이유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없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천사가 해준 것인지, 운이 좋아서 된 것인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게 된 다음에 해주심으로써 “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렇게 확실히 알리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힘이나, 내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그 분께 매달려야만 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뜻으로 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회복되는 신앙”

성경 / 요한계시록 2:1-15 · 찬송 / 440장, 459장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3.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곧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 버렸다고 경고하면서 언제 떨어졌는지 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첫사랑을 찾지 못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 놓으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 징계를 내리십니다.

잘못된 자녀들에게 매를 내리는 부모같이 하나님도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넘기시지 않고 징계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다 호된 징계를 받았습시다. 그 징계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아도 탕자는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제 마음대로 행하다 망하게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성도들의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매입니다.

2. 말씀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자 “내가 닭 울기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3.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돌이킨 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때 완전한 회복의 신앙이 됩니다.

Book

하나님과 함께 놀다

새로 나온 책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게 됩니까?
저는 주로 출판사를 보면서 고르는데 특별히 기독교서적이란 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어렵지 않게 서술한 책들을 잘 출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단 뛰어내려라, 무서운건 나중 문제다!"라고 외치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지금 당신이, 믿음의 기쁨과 자유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놀다'가 당신 삶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의 기독교가 기쁨없는 시무룩한 얼굴이었다면 이 책은 당신을 자상하고 무섭고 쾌활하고 경이로운 하나님과 재회시켜 줄 것입니다."라고 이 책은 자신하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이클 야코넬리 지음 / 윤종석 옮김
/ 복있는 사람 / 7,500원



논 리 야 놀 자

수열 : 다음에 올 수는?

10, 11, 12, 13, 14, 15, 16, 17,
20, 22, 24, 31, 100, 121, ?

【 전월호 정답 】

바꾸는 쪽이 두 배로 유리합니다.
어차피 남은 두 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므로 어느 쪽을 고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자가 열어 주는 문이 셋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승자가 고르고 남은 문 둘 가운데 하나를 열어 주는 것이므로 단순히 두 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우승자가 문을 고르기 전에 하나를 먼저 열어 주고 고르라고 했다면 확률은 어느 쪽이든 1/2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승자가 먼저 문을 고른 다음 남은 두 문 가운데 하나를 열어 주는 경우는 우승자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바뀌어서 성공할 확률이 2/3가 됩니다.

누가 끊으리요

남미위십찬양

주옥과 같은 남미지역의 찬양곡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녹음한 앨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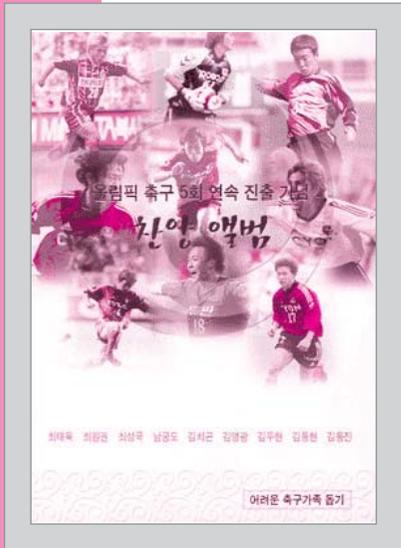
전 곡을 브라질 현지에서 현지 세션들과 함께 녹음하였고 강명식, 이길승, 조준모 등 한국의 유명한 찬양사역자들이 보컬로 함께 녹음에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의 판매 대금은 전액 남미지역의 찬양사역자들을 새롭게 세우는데 사용되어 진다고 하네요. 



Various / LAMP / 10,000원

Music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부르는 찬양 앨범



올림픽 축구대표팀 / KSR media / 10,000원

최성국(마음이 상한자를, 나의 하나님), 김영광(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자), 김동현(천년이 두번 지나도), 김치곤(주만 바라 불찌라), 최태욱(나의 안에 거하라), (당신을 향한 노래 - 다함께), 김두현(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김동진(너는 내 아들이라), 최원권(주는 나의), 남궁도(기대)

와우...재미있는 음반입니다. 올림픽 축구 5회 연속 본선 진출을 기념해서 어려운 축구가족을 돕기 위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FOOD

약식케익

천고마비의 계절,

정말 하늘은 높고 푸르며 맑은 살 썰만한 기분좋은 가을입니다.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잘 먹기도 해야 하겠지요. 식욕이 당기는 이 가을에 책을 읽으며, 공부하며 먹을 수있는 간식겸 우리 고유의 최고의 영양식을 소개하고자합니다.



• 필요한 재료

참쌀 4컵(계량컵 200cc기준으로), 물 2.5컵 -묵은 찹쌀이나 조금 저급 찹쌀인경우엔 2컵이 적당. 안 그럼 좀 질게 된다.
진간장 2큰술, 참기름 3큰술, 소금 1작은술, 계피가루 2작은술, 흑설탕 1컵, 밤 10개, 대추 15개, 잣 2큰술, 건포도 2큰술
-이중 흑설탕 이하 다섯가지는 식성에 따라 용량 가감가능

• 이렇게 만드세요 -

1. 먼저 찹쌀을 깨끗이 씻어 1시간~2시간동안 불림(찹쌀을 반나절 불리라는 곳도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 없고 한두시간에 물만 충분하면 다 불림).
2. 밤은 껍질까지 4등분하고 대추는 돌려깎기해서 이등분함.
3. 불린 찹쌀에 흑설탕,참기름,계피가루,약간의 소금 넣어 고르게 섞음(이때 설탕은 충분히 녹여야 나중에 밑바닥만 설탕물이 진하게 물드는걸 막을수 있음).
4. 모든 재료 밥솥에 넣어 다시 고르게 잘 섞고 마지막에 물을 넣어 다시 잘 섞어줌.
5. 메뉴를 백미고압으로 맞춰 압력취사버튼 눌러 자동실행.
6. 완성되면 밥솥을 열고 다시한번 밑까지 고른 색 나오도록 주걱으로 잘 섞어줌.

7. 뜨거운 약식을 밀폐사각그릇에 담아 적당히 식힌후 썰어냄.

• 팁 -

- 1] 계피가루를 나중에 물에 넣으면 동동 뜨므로 3번과정에서 꼭 넣기.
- 2] 흑설탕 계량시 그냥 안 누르고 계량해서도 될듯, 그치만 단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반컵정도 증량 가능.
- 3] 밤을 물에 불려 가니 조금 쉬웠고 안의 껍질은 렌지에 한 번 돌려주면 더 잘 벗겨짐.
- 4] 모양을 예쁘게 내시려면 사각틀에서 굳히는거보담 김밥 모양틀중 초밥모양 내는 판에 넣어 굳히니 하트, 별, 꽃무늬가 나와서 참 예뵤다. 색깔을 내기 위해서 대추씨랑 대추 5개정도 반을 갈라서 물2컵 분량을 끓임 그리고 대추 우린 물에 흑설탕 한컵을 넣고 녹여서 그 물을 계량해서 찹쌀에 다 넣으면 설탕도 잘 녹고 찹쌀에 잘 베어서 좋다. 그다음 다된 약식을 케익틀에 넣어서 모양을 만들고 위에 잣과 대추로 장식을 하면 멋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주일 찬양 예배 : 오후 3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 오후 7시
기도회
 • 새벽 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 오전 10시 30분
 • 유치부 : 오전 11시
 •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 오전 9시
 유년부·초등부 2부 :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 오후 1시

몽골예배/중국어예배 : 오전 1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부 성경공부 :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www.wpc.or.kr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김재영 장로 지도 : 이승민 목사
 주관 : 이종훈 집사 취재팀 : 장숙현 집사, 임현석, 홍지혜, 이수정
 사진 : 차주영 미술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객원기자 : 배승원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 교회 : 02-2299-1011 출판실 : 02-2295-0114 FAX : 02-2292-0309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85-4109)